

“장기 기증은 대승보살행”

생명나눔, 장기이식 인식전환 세미나 개최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대승보살행이다.” “보시 가운데 신체 각 부분을 보시하는 공덕이 가장 크다.”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말하는 2007년 8월말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만여명. 이중 장기이식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이는 1200여건이고, 이들에게 장기를 제공한 뇌사자는 106명에 불과해 장기 기증률이 절실하다. 그 립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 희망자는 전체 불자의 10% 뿐이다. 이는 이웃종교인 60%가 장기 기증을 약속한 수치와 비교해 초라하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장기기증’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장기 기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세미나는 우희종 교수(서울대)와 이수덕 회장(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의 발표에 이어 박광서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광만연 교수(동아대), 박병기 교수(한국교원대)가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우희종 교수는 ‘생태적 사고와 생명나눔’이란 논문을 통해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대승적 보살이라는 관점에서 교계가 장기이식에 대해 적극적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우희종 교수는 “연기적 관계로 본 생명나눔은 입전수수 하는 자세로 즐겁게 통제대비 하는 보살행”이라며 장기이식과 장기 나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수덕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

침을 통해 본 생명나눔’이란 글에서 장기기증에 관한 전거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금강경> 제1부의 ‘환지분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옴)’의 본처가 바로 동체 혹은 법계일상(法界一如)을 깨닫는 자리’라며, “동체사상의 견지에서 장기기증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닌, 내 몸 일부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리바꿈 하는 것뿐이다. 장기기증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보시행으로 장기기증을 설명한 이수덕 회장은 “보시 중 신체 각 부분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크다. 참다운 보시행을 하는 불자라면 장기기증도 주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마음가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환우들이 속히 자기 차례가 와 장

기이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은연 중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수덕 회장은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의업(義業)을 짓게 할 수 있다”며, 단순한 장기기증 이상의 교화를 거듭 강조했다.

광만연 교수는 “한국 환우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장기 기증은 뇌사상태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 교수는 “투철한 자비정신으로 유교적 유체관을 극복하고 이웃을 위해 장기기증이라는 자비행을 실천하자”고 역설했다.

박병기 교수는 “불교윤리는 자신의 내면을 향한 깨달음의 윤리와 자신과 인연 맺은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자비의 윤리로 나뉜다”며, “장기 이식을 권할 불교윤리적 근거는 자비와 보시”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촛불집회 수배자를 연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전·의경들에게 조계사 증무원이 미숫가루를 권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상생의 미숫가루 드세요”

조계사, 촛불집회 수배자·경찰에 전달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은 7월 10일 경내에서 농성중인 광우병 국민대책위 수배자들과 조계사 인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상생의 미숫가루’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전·의경들은 자유청년연대 등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미숫가루를 마시지 못했다.

노덕현 기자

“케이블가 추진사업 대응 중단차원 강력대책 필요”

전통사찰이 속해있는 한라산과 월출산 등 전국 명산에 대한 지자체 등의 케이블가 사업추진에 대해 중단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은 7월 1일 ‘전국 명산 케이블가 설치 대책추진’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성스런 가르침을 외면하는 전국 명산의 케이블가 설치대책 마련을 중단에 촉구했다.

연구소는 의견서를 통해 “케이블가 설치로 사찰이 관광유락지로 전락되고 훼손됨과 동시에 불교에 대한 위상과 권위 추락, 정부와 지자체 상업주의에 불교가 희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연구소는 “전국 11곳에서 추진중인 케이블가 설치에 대해 호법차원에서 개발정보 수집과 대책수립, 환경부에 대한 불허압박을 종단이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사찰들도 수행환경보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연과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것과 지역 환경단체와 연대한 반대운동, 주민발자와 함께하는 법적 대응 등을 촉구했다.

김성우 기자

‘시국법회추진위’ 상설조직으로

매주 1회 법회 봉행키로

‘시국법회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수경)가 상설조직으로 개편된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7·4 시국법회를 주관했던 시국법회추진위원회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7월 16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 앞 ‘108참회 시국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한 번씩 법회를 봉행한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지속될 이 상설조직은 ‘주권재민·정교분리의 헌법정신 구현을 목표로 한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이명

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독선, 종교적 갈등고등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동과 정책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는 임기 중 계속될 개인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조직재편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은 민의를 돌리기 위한 진지한 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 경찰청장 교체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책 제시 ▲공직자의 정교분리 원칙 준수 ▲반생명적 최고기 설치 반대 등을 촉구하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백제 삼중기단 목탑지 구조 부어문화재연구소서 밝혀

백제 삼중기단 목탑지와 금당지 등 익산 제석사지의 실체가 드러났다. 제석사는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해 세운 백제 왕실사찰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 이하 연구소)는 7월 10일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 405호)에 대한 2008년도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2008년 발굴조사를 통해 정교한 판축으로 만든 삼중기단 목탑지, 화려한 인당당초문 암막새로 장식된 금당지 등이 발견됐다”며, “제석사가 1탑 1금당의 가람배치를 한 전형적인 백제 왕실사찰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2007년 6월 22일 시작된 발굴조사는 제석사 규모 및 존재양상, 각 유구들의 축조방법을 밝혀내고, 왕실사찰 존재 규명, 정비 복원 자료 등을 목적으로 실시해 제석사 실체에 근접한 성과를 얻었다.

조동섭 기자

‘北동포 돕기’ 100만인 뜻 모은다

정토회, 식량 지원·북한경제발전기금조성 위한 서명운동

사단법인 정토회(이사장 법륜)는 7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굶주리는 북한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정토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정부는 식량 20만톤을 조건없이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북한경제개발을 위해 남한정부예산 1%를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100일동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또 “북한은 9월까지 식량지원이 안될 경우 5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남한정부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주도로 구호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동포로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고 국민들의 참



7월 8일 열린 북한주민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여를 호소했다. 이어 정토회는 선언문을 통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과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는 절약운동도 함께 전개해 운동으로 모인 모금을 북한식량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정토회는 이날부터 서울, 부산, 대

구, 광주 등 국내 12개 지역과 LA, 뉴욕, 워싱턴,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방콕, 북경 등 해외 14개 지역에서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온라인(www.jungto.org)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는다.

노덕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IROBOT (주)경인메트로닉스

NAVER 24시간 마미로봇 고객센터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장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월 오후 2시 ~ 음력 11월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 음력 21일 정오 12시

◇ 개강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 강 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08년 9월 8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불교예술평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평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법매 및 작법무 사물타루는 법 등 전반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개 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